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2호 【루계 제26006호】 주체107(2018)년 5월 12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고무추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자강도당위원회와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자강도당위원회에서

자강도당위원회에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대중을 고무추동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과 력사적의의, 투쟁과업들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힘을 넣도록 하여 그들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중요전투장들에 구호들과 함께 선전화, 속보판, 경쟁도표들을 게시하고 선전선동사업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파견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에 내려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과 투쟁과업들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도안의 경제사업과 과학교육사업,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고있다.

시, 군들을 맡고나간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 단위들에 나간 일군들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과 건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간 일군들은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교육자들이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예술극장건설장, 흥주청년4호발전소건설장, 강계교원대학건설장, 살림집건설장,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하여 모든 일터마다에서 일군들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똑똑히 명심하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홍주닭공장, 강계돼지공장, 장계오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협동농장들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특히 잠업도의 특성에 맞게 올해에도 누에고치생산에서 또다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한편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사리원방직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 공장, 기업소, 농장들과 전투장들에 구호들과 선전화, 표어들을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도와 시, 군집중강연선전대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들을 총동원하여 기동적인 선전선동활동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례성강청년5호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시, 군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도록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다수확분조,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농장대렬을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공적으로 전개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교원, 연구사들속에 깊이 심어주는 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의 운영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도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마다에서는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상반년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계속 혁신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오석산화강석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돌가공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 3월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의 건설과 개건에 쓰일 수만㎡의 질좋은 판석들과 벽체장식판, 기단 및 계단돌들, 수천개의 란주들을 생산하였으며 그것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과 남포시의 여러곳에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킬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들이대고있다.

창재봉, 리명길동무를 비롯한 광산의 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끓이며 생산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광구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온 광산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새로 일떠세운 비석생산기지를 비롯한 후방기지들이 은을 내도록 떠밀어주어 대중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원석생산과 기공구재생리용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광산의 전반적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였다.

광산의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 리용가치가 적던 근 1 000㎡의 원석들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연마직장을 본보기로 하여 시범을 창조하고 광산안의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 기공구재생리용의 된바람을 일으킨 일군들은 기술학습과 기술전습, 경험교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도록 하였다.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이 비상히 앙양된 속에 광산적으로 5종에 수천점의 기공구가 재생리용되여 생산에 적극 이바지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많은 가공기계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생산속도를 2배이상으로 높이였으며 돌가공품의 질도 더욱 개선하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헤치면서 원석채취와 수송, 가공전투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남포시당위원회와 룡강군의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자주 찾아와 대중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혁명적열정에 의해 돌가공품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자강력으로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과학기술과 자강력을 혁신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삼고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장으로 옮기고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석탄증산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 석탄생산계획이 높아진데 맞게 탄광들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설비와 자재 등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으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요구대로 설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하여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선행시키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룡등, 룡수, 룡문탄광을 비롯한 아래탄위들에서 굴진과 채탄, 운반 등 생산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여 매일 석탄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화력탄보장을 맡은 룡등탄광의 지하막장들에서 타오르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막장들에 들어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깨기있게 하고있다.

탄광참모부에서는 일생산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의 열의를 높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채탄장들에 로력을 집중하며 운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짜고들어 석탄생산을 높이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안심갱과 6갱, 3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실적을 올리고있다. 선무리지구에 전개된 굴진소대들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6갱의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와 1갱의 김영욱고속도굴진소대에서는 1.4분기 굴진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현대적혁신의 불길은 탄광의 다른 고속도굴진소대들에서도 타오르고있다. 석탄운반을 맡은 벨트갱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운반실적이자 석탄생산실적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고있다.

룡수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자강력으로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보장부문의 로력을 동원하여 수십리밖에 있는 채벌장에서 갱목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탄차와 레루가 부족한 조건에서 베아링을 비롯한 많은 부속품과 자재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여러대의 소형전차와 백수십대의 탄차를 수리정비하여 석탄운반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있다. 3갱의 일군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채탄장을 마련하고 탄부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2갱과 로천갱,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석탄운반을 맡은 운반갱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차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 캐놓은 석탄을 제때에 실어내고있다.

룡문탄광의 일군들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석탄생산실적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막장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타번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일념안고 기관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강철전선에 많은 량의 파철을 집중수송

평양시에서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 시에서는 100여대의 화물자동차에 수백t의 파철을 실어 철강재생산으로 들끓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나라가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철강재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kg의 파철이라도 더 많이 수집하여 강철전선에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에 내려가 더 많은 파철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기동예술선동대활동과 직관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통한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벌리면서 파철수집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시인민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은 단위들을 맡고 현지에 내려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파철을 모아들이며 수집한 파철을 강철전선에 제때에 실어보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깨기있게 벌리였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기수가 될 불타는 각오에 충만된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의 앙양된 열의와 째인 조직사업에 의해 시에서는 1.4분기와 4월 파철수집과제를 넘쳐 수행한데 이어 5월에 들어와서도 많은 파철을 강철전선에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진행한 파철집중수송에서는 대동강구역과 만경대구역, 선교구역과 중구역, 보통강구역과 동대원구역이 시적으로 제일 앞장에 섰다.

특히 대동강구역공업품종합상점과 제과도매소, 보통강구역식료품종합상점과 동대원구역상하수도사업소가 모범을 보이였다.

이 단위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철강재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파철수집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 많은 파철을 모아들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지원사업에 고무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현대적인 벨트콘베아굴개생산공정이 일떠섰다

단천지구광업총국 단천광산설비부속품공장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 단천광산설비부속품공장에서 벨트콘베아굴개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다.

절단으로부터 가공, 조립공정에 이르기까지 흐름식으로 된 생산공정은 이번에 진행된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종전보다 가공정밀도가 높은 각종 규격의 벨트콘베아굴개생산공정의 능력은 대단히 크다. 그리하여 단천지구 광물생산기지들은 물론 채취공업부문 광산들에 필요한 벨트콘베아굴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단천지구광업총국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굴지의 광물생산기지들이 집중되여있는 단천지구의 생산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그 수요가 많은 벨트콘베아굴개를 다량생산할수 있게 능력이 큰 생산공정을 일떠세울 작전을 펼치였다.

최남철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전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벨트콘베아굴개생산공정을 훌륭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이들은 원통오무리기공정에서 용접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밀폐를 보장할수 있게 하기 위한 새 기술창조에 달라붙었다. 지난 시기까지만도 베아링집의 밀폐를 보장하기 위해 용접으로 원통오무리기를 하다보니 광산들에서는 벨트콘베아운영과정에 열변형이 일어나 동심도가 흐트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원통오무리기를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식으로 새롭게 창조할 배심을 가지고 달라붙었다. 그 어디에서도 해본적이 없는 기술개척이였지만 이들은 해당 단위와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차례의 3차원콤퓨터모의시험을 하면서 새 기술을 창안하였다. 결과 원통오무리기에서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을 개척하고 벨트콘베아굴개의 수명을 대폭 늘일수 있는 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원통오무리기에서 용접작업이 완전히 없어지니 로력은 물론 막대한 전력소비가 줄어들고 연마작업공정도 없어졌다.

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소재운반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사슬식콘베아제작에 달라붙었다.

수자조종장치가 도입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의 가공, 조립속도에 맞게 소재운반용콘베아흐름속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술적문제해결에 모두가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해당 단위와 협력하여 자체의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를 완성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20여일간의 불꽃튀는 전투끝에 사슬식콘베아제작과 설치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냈다. 그리하여 얼마전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6m에 달하는 인발관을 자동적으로 들어올려 절단공정을 거친 소재가 사슬식콘베아를 타고 가공, 조립공정으로 흐르게 됨으로써 많은 보조로력이 없어졌으며 기대공 한명이 절단기와 가공선반을 동시에 맡아볼수 있게 되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공장에서는 충분한 시험생산을 거쳐 제품의 성능과 질적지표들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자랑찬 성과를 안아온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규격의 벨트콘베아굴개생산에서 패권을 쥘 자신만만한 배심에 넘쳐 본격적인 생산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원료배합 및 정량공급의 과학화 실현

청진제강소에서

청진제강소에서 회전로에 무연탄소립화가 접합된 새로운 방식의 원료배합 및 정량공급공정을 확립하였다.

제강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확립한 이 공정은 종전과는 달리 콤퓨터로 감시조종할수 있어 원료장입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다. 또한 회전로를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훨씬 줄이면서 로의 생산능력과 주체철의 질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제강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체철생산과 질제고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원료배합과 정량공급의 과학화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현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청진제강소 회전로들에 새로운 방식의 원료배합 및 정량공급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제강소당조직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원료배합 및 정량공급공정확립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일군들은 직장, 부서들호상간 련계를 강화하고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나갔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새로운 공정확립에서 위훈을 창조하였다.

설계집단은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공정별설계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공무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매일 수백점에 달하는 주물품과 제관품들을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수십대의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제작하고 각종 굴개를 비롯한 수천점에 달하는 부분품들을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제강소일군들은 설비와 부분품생산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는데 맞게 소석회로의 기술개진과 설비와 부분품설치 및 조립을 립체적으로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방대한 공사과제로 나섰던 설비와 부분품들의 조립, 수백m의 벨트콘베아설치를 한달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전투현장에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생산공정들을 콤퓨터로 감시조종하는 새로운 방식의 원료배합 및 정량공급공정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회전로에 새로운 방식의 원료배합 및 정량공급공정이 확립됨으로써 주체철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27)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여

온 나라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천만군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혁명박물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관을 참관하는 우리의 가슴은 마냥 설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령도로 굳건히 다져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에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면서 강사는 우리를 안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관에서 우리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력사적사실을 보여주는 호실을 돌아보았다.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던 나날에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키시여 대중령도방법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데 대하여 감동깊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창조》라는 글발이 부각된 벽면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숭엄히 우러렀다.

력사의 땀 청산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우리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전하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9(1960)년 2월 보름동안 강서군(당시)과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리와 군의 사업을 료해하신데는 사연이 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혁명과 건설이 빨리 추진되고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군들의 조직지도수준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부족점은 농촌경리부문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 문제해결의 절박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전해에 진행된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할데 대하여 강령적인 카르치심을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서군을 새로운 사업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시범단위로 정하시고 청산리와 군당위원회에 지도소조를 파견하신데 이어 몸소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이른새벽 숫눈길을 헤치시며 청산리에 오신 첫걸음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도소조의 보고를 받으시기에 앞서 농민들의 집을 찾으시여 그들의 생활형편부터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지난해에 로력공수는 얼마나 벌고 알곡과 현금은 얼마나 분배받았는가, 집짐승은 얼마나 기르는가, 김장은 넉넉히 담그었는가, 아침에 무슨 밥을 해먹었는가, 이부자리는 다 갖추었는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가, …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느라 분초가 새로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시며 정범한 농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주신 사실들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산리초급일군들과 핵심당원들을 만나 담화도 하시고 리의 사업을 깊이 파악하신데 기초하여 군당과 군인민위원회사업을 료해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그대로 지도사업은 사무실이나 회의장의 언락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장악하고 포치만 하는것이 아니라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늘 사업도 토의하고 애로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풀어주면서 실지로 아래단위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우리 일군들에게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뜻깊은 자욱자욱으로 아로새겨졌다.

주체49(1960)년 2월 8일 청산리당총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우러를수록 잊지 못할 그날 회의참가자들이 하는 토론도 들어주시며 사회주의적농촌경리발전과 대중지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라도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관리위원장은 농사를 할줄 알아야 한다. 농사의 선생은 여기에 모인 조합원들이다. 때문에 관리위원장은 밤에 직접 내려가서 일도 같이하면서 물어도 보고 의논도 하고 자기가 아는것은 가르쳐도 주어야 한다, 나도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경험해보았는데 일을 잘하자고 하면 대원들과 늘 사업도 토의하고 그들의 애로도 풀어주며 그들을 교양하여야 하였고 군사정치훈련에서도 모범이 되여 대원들보다 총도 더 잘 쏘아야 하였다, 관리위원장은 농민들과 언제나 농사일을 토론하고 그들에게서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밑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분공을 줄수 있으며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하시며 대중지도방법을 일깨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의 원림원고를 보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어떻게 창조되게 되였는가를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청산리방법의 기본, 그것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일반화》라는 글발이 부각된 벽면에서 참관자들은 당시 우리 조국의 벅찬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청산리방법이 전당에 일반화되는 과정에 당사업은 창조로 들끓는 공장의 기대앞과 논밭머리에서 진행되는 사람과의 사업,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 모든 부문, 모든 사업에서 지도가 아래에 접근되고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게 되였다.

청산리방법이 전당에 일반화되여 당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적군중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천리마운동이 한층 다그쳐지게 되였으며 경제사업에서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다음호실에서도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기적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강사로부터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에로의 진변》이라는 글발이 부각된 벽면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기간에 이룩한 성과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어떻게 빛나게 실현되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5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전일적지배를 확립하게 되였으며 기계화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닦아지고 농촌경리도 튼튼한 생산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생활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 입고 쓰고살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은 승리적으로 실현되였다.

력사의 그 나날을 추억하시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구절구절 더듬을수록 전후 재더미만 남아있던 이 땅우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5개년인민경제계획 현물지표별로 4년동안에 넘쳐 완수, 공업과 농업의 총생산액 1956년에 비하여 각각 3.5배, 1.4배로 장성.

호실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비상히 높여주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자료들도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혁명령도를 적극 보좌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불멸의 사적내용도 있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관의 마지막호실에 들어섰다.

력사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당중앙위원회 집무실모형을 비롯한 뜻깊은 사적물들과 전시된 자료들은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던 나날에 입으시던 군복외투가 소중히 보관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았을것이지만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 늘 입으시던 옷깃이 다 닳아서 보풀이 일고 해여진 수수한 군복외투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며 보풀이 일고 해여진 군복외투의 오리오리에는 위기에 처했던 혁명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려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을 찾으시여 수억만리길을 이어가신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신 사연깊은 군복외투였다.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2(1953)년 7월부터 주체49(1960)년 12월까지 진행하신 현지지도주요지역도가 안겨왔다.

현지지도주요지역도에 새겨진 지명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우리의 눈굽은 달아올랐다.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이 이어가신 헌신의 길은 그 얼마였던가, 그 자욱우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은 승리적으로 실현되였다.

력사의 그 나날을 추억하시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구절구절 더듬을수록 전후 재더미만 남아있던 이 땅우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5개년인민경제계획 현물지표별로 4년동안에 넘쳐 완수, 공업과 농업의 총생산액 1956년에 비하여 각각 3.5배, 1.4배로 장성.

호실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비상히 높여주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자료들도 전시되어있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관의 마지막호실에 들어섰다.

력사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당중앙위원회 집무실모형을 비롯한 뜻깊은 사적물들과 전시된 자료들은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던 나날에 입으시던 군복외투가 소중히 보관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았을것이지만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 늘 입으시던 옷깃이 다 닳아서 보풀이 일고 해여진 수수한 군복외투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며 보풀이 일고 해여진 군복외투의 오리오리에는 위기에 처했던 혁명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려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을 찾으시여 수억만리길을 이어가신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신 사연깊은 군복외투였다.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2(1953)년 7월부터 주체49(1960)년 12월까지 진행하신 현지지도주요지역도가 안겨왔다.

현지지도주요지역도에 새겨진 지명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우리의 눈굽은 달아올랐다.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이 이어가신 헌신의 길은 그 얼마였던가, 그 자욱우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은 승리적으로 실현되였다.

력사의 그 나날을 추억하시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구절구절 더듬을수록 전후 재더미만 남아있던 이 땅우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5개년인민경제계획 현물지표별로 4년동안에 넘쳐 완수, 공업과 농업의 총생산액 1956년에 비하여 각각 3.5배, 1.4배로 장성.

호실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비상히 높여주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자료들도 전시되어있었다.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관을 나서는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 불타는 맹세가 비끼였다.

글 본사기자 림 정 호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사랑의 온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은 민족의 장래와 후대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농업대학(당시)을 찾으신 어느해 4월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 일군에게 오늘 원산농업대학에 새로 건설한 온실을 돌아보러 왔다고 하시면서 온실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런 온실은 우리 나라 그 어디에도 없는 온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산농업대학에 새로 건설한 토양식무공해온실은 빛과 온도, 습도조절을 비롯한 모든 관리운영을 완전히 자동적으로 진행하는 현대적인 온실이라고 하시면서 이 온실은 자신께서 원산농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선물로 준 최신식온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신식온실!

참으로 다심한 사랑이 어린 말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온실로 향하는 대학일군의 뇌리에는 두달전의 일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때 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 대학의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대학의 일군에게 요구되는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요구되는것이 없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일군의 생각이 기특하신듯 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여기로 오면서 무엇을 줄것인가를 생각하였는데 온실을 선물로 주는것이 어떤가고 하시면서 동무가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가서 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일군은 너무도 황송하여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어느 한 현대적인 온실을 돌아보신 후 필요한 설비와 자재는 물론 군인건설자들까지 보내주시여 짧은 기간에 희한한 온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해주시였던것이다. …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실에 들어서시였다. 갖가지 남새들이 싱싱히 자라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작물들이였다.

일군의 설명을 들으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한곳에 시선을 멈추시고 원산큰도마도와 구기자도마도에도 꽃이 피였다고 하시면서 인차 열매가 달릴것 같다고 무척 기뻐하시였다.

사랑의 미소가 따스한 봄볕마냥 온실안에 가득 넘치였다.

희한한 온실을 선물로 안겨주시고도 또다시 찾으시여 온실에 사랑의 해빛을 가득 채워주시였으니 어찌 계절을 앞당겨 열매가 맺지 않을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넘치는 온실에서 무르익은 열매들을 따들이며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뜨거운 눈물속에 아뢰이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온실에 알찬 열매들이 주렁졌습니다.)

본사기자 전 광 남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구장군식료공장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회상기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독보와 연구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쉼참을 리용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자》를 가지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인생관과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자고 한 그의 호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살며 투쟁할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면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생산적앙양의 봉화를 세차게 올릴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로농통신원 조 건 일

혁명하는 보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걸고걸으신 사랑과 헌신의 길은 그 얼마였던가.

끝없이 헤쳐가신 그 길우에 꽃펴나는 인민의 행복과 후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였으니 우리 어찌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모습을 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으로 하여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안겨옵니다.》

주체98(2009)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영관의 출입문앞으로 다가서실 때였다.

대학의 한 일군이 그이께 이 문은 원형자동문으로도 리용하고 정자동문으로도 리용할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설명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영관에 원형자동출입문을 달아놓으니 보기 좋다고, 원형자동출입문이 요란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출입문을 여름에는 정자동문으로 리용하고 겨울에는 원형자동문으로 리용하려 한다는데 문을 돌려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일군이 문을 회전시키자 육중해보이던 문이 가볍게 돌아갔다.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속에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의 훌륭한 출입문에는 수영장을 리용하게 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한바탕을 맞을세라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이 어려있었던것이다.

이윽고 수영장으로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설치한 조약대를 보시며 수영장에 조약대를 설치해놓으니 정말 멋있다고, 조약대가 보기 좋다고 기쁨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몇달전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수영관을 돌아보실 때 수영장에 조약대가 없는것을 보시고는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조약대를 설치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사랑속에 마련된 조약대에서는 대학생들이 련거퍼 뛰여내리고있었다.

행복넘친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는것이 너무 기쁘시여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최상급의 수영장을 또 하나 물려줄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에 훌륭한 수영관을 무려주고 수영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대학생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하는 보람!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수시로 공사정형을 알아보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수영관이 훌륭히 완공되도록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되새길수록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사랑과 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불철주야의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조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더없이 중시하시며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정녕 우리 장군님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조국의 미래를 만발하게 꽃피워주시는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 격정으로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본사기자 강 원 남

국토관리는 항구적인 사업

당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국각지에서 나무심기와 도로, 다리들의 기술개건과 보수, 강하천정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우리 나라를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자면 국토관리사업을 계속 중시하고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을 계속 중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왜 국토관리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과 잇닿아있기때문이다.

당 제7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는 전당, 전국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채택되였다. 우리 혁명발전에서 전환적리정표로 되는 이 력사적인 회의들에서 발표된 중대결정들에는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우리 나라를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전면적으로 꽃피우려는 당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다. 당의 의도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러운것 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면 국토관리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후대들에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줄수 있다.

오늘 세계도처에서는 해마다 왕가물과 큰물, 태풍, 해일 등이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주고있다. 자연의 대재앙을 가시는데 많은 인적, 물적자원이 소모되고있으며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상적으로 국토관리사업을 잘해나간다면 예측할수 없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를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으며 더 많은 로력과 자재를 인민생활향상에 돌릴수 있다. 최근 운산군과 벽성군을 비롯하여 국토관리사업에서 앞장서고있는 단위들의 경험은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강하천정리, 도로보수 등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갈 때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나라의 모든 산과 강들을 보물산, 보배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미는 길이자 경제건설을 더욱 가속화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지름길이다.

—그것은 다음으로 이미 이룩한 국토건설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때문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인민은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강국의 제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구상에 따라 도처에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수 있는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려놓고 여기에서 생산된 나무모로 수십만정보의 면적에 나무를 심어 산림복구 1단계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난해에만도 전국적으로 수백km의 도로와 구조물들의 기술개건이 진행되고 천여km의 강하천들이 빈틈없이 정리되였으며 지피식물조성사업이 근기있게 벌어져 조국의 면모가 눈에 뜨이게 달라졌다. 해당 부문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도, 시, 군들에서 봄철과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산림복구와 강하천정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폭우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와 같은 피해를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여 국토관리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이 모든것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의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하여 조국의 산과 들, 강은 말그대로 황폐화되였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전후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국토관리사업에 총궐기, 총대진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국토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고 풍부한 자연부원을 마련하였으며 로동당시대의 일대번영기를 펼칠수 있었다. 그때처럼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이 남부럼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시대를 안아오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그러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토관리사업을 계속 중시하고 끝장을 볼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

—그것은 또한 이 사업이 참된 애국자대군을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다.

국토관리사업은 단순히 산천을 가꾸는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애국주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싹트고 자라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다. 사람들은 국토관리사업에 참가하여 자기가 사는 고향과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는 과정에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며 자기가 맡은 본신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해나가게 된다. 창조의 땀을 흘려 사회주의재부를 늘여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빼앗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을 끝없이 증오하며 관가리결전장에서도 용맹을 떨칠수 있다. 우리 당이 국토관리사업을 전사회적으로, 전군중적운동으로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의 령도밑에 날이 갈수록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국토관리사업을 통하여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더욱 소중히 간직한 우리 인민들은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그들속에는 20여명의 중학교졸업생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도로관리부문에 자원진출하여 인적드문 벵길에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량강도 김정숙군도로보수관리대 명성령청년관리소대 소대장 리광선동무도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군의 면모를 몰라보게 일신시킨 자강도 동신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있다.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참된 인간들이 많기에 이 땅우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훌륭한 미래가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국토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꾸려나가야 할것이다.

리 강 호

이런 투쟁기풍과 창조본때가 첨단돌파의 지름길을 연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투쟁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전선이 새로운 비약의 기백으로 약동하고있다.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제일척후전선에서 맹렬한 첨단돌파전을 벌려나가고있는 미더운 주력군의 앞장에는 나라의 첨단생물공학연구중심기지인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도 서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혁명생애의 마지막해에 생물공학분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분원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분원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지침을 밝혀주시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생물공학분원의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사전을 줄기차게 벌려 최근 2~3년동안에 가치있는 첨단생물공학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하여 분원에 주신 유훈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관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든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창조본때에서 우리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제일척후전선에 휘몰아치는 람구전, 창조전의 거세찬 열풍을 안아보게 된다.

첨단전구에 타오른 사상전의 불길

생물공학은 정보기술, 나노기술과 함께 21세기 핵심기초기술의 한 분야이다. 오늘날 생물공학의 발전수준은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과학기술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할것을 제일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나라의 생물공학발전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높이 하는 세계적인 경쟁마당에 나선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것은 주체104(2015)년 2월부터였다.

당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다시금 조항별로 하나하나 료해해나가던 분원의 책임일군들은 심한 자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그전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였었다. 병원성미생물검사소련과 유전자진이작물검사소련개발, 생물소전제작에서 필수적인 기술의 하나인 유리기판활성화기술개발, 키낮은사과나무접그루생산의 공업화실현, 줄기세포기술의 확대도입, 줄기세포배양시약의 개발생산에 성공…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볼수록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눈에 뜨이였다. 항구적으로 집행하고있는 도입과제들을 내놓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중요연구과제들과 과학기술적난도가 높은 개발과제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만하면 앞섰다고 하던 엄기전딜성버를 비롯하여 특성이 좋은 여러가지 종류의 농작물육종연구만 놓고보아도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주신 과업들이였으나 어려해빼 포전시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일부 과학자들의 말처럼 철저한 책판성을 요구하는 포전시험조건을 무시할수 없다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고 농작물재배경험이 부족한것도 사실이였다.

그렇다고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는것이 응당하단 말인가.

책임일군들은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았다.

100년래의 왕가뭄이 들었던 2014년에 우리 나라 서해안의 적지 않은 농장들에서는 염기피해를 심하게 입었다. 이 문제를 두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한 자신들을 뼈아프게 질책하였던 그들이였다. 어떻게 하나 2015년에는 꼴을 보자고 애써 방도를 찾아나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닭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을 틀어쥐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고한 뜻을 되새길수록 책임일군들이 받는 충격은 참으로 컸다.

(지금까지 이 연구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말해온 우리 일군들이 아닌가. 하다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연구사업을 기어이 완성하겠다는 사상적각오와 신념도 누구보다 투철했던가?)

심장을 두드리는 량심의 불음앞에 책임일군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기본열쇠는 결코 그 어떤 애로조건을 풀기 위한 실무적인 방도에 있는것이 아니였다. 사상에 있었으며 무엇보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 특히 책임일군들자신의 사상적각오에 있었다.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첨단돌파전은 단순히 두뇌전, 기술전이기 전에 사상전이였다.

분원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상전의 불을 걸어 특성이 좋은 농작물육종연구에서부터 전환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자신들의 뼈에 먼저 쪼아박고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자자구구 새겨주며 책임일군들부터가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그때 몸철에 들어서면서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인 허광춘원장을 비롯한 분원의 책임일군들은 식물유전자공학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안정수동무와 실장 김천일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함께 분원에서 새로 육종한 벼품종의 적지를 찾아 염기피해를 심하게 입은 황해남도의 여러 농장들로 달려나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분발해나선 과학자들을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현지일군들이 적극 도와나섰다.

전해에 염기피해를 너무 심하게 받아 거의나 무수확이였다는 간석지논에 시험포전이 정해졌다. 시험결과는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한해농사의 첫 공정인 모내기에서부터 사람들을 깜짝 놀래웠다. 극악한 황가물이 지속되는 속에서 한 논배미에 낸 일반품종의 모들은 짠물에 견디지 못하고 인차 죽어나가 어디차례나 모내기를 다시하지 않으면 안되였을뿐아니라 겨우 살아남은것들마저 소금독이 올라 일이 뻗정게 되거나 나중에는 죽어버리는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새 품종의 모들은 싱싱하게 정상생육하였으며 가을에는 같은 논배미에 심은 일반품종에 비해 수배, 최고 십여배에 달하는 소출을 냈다.

염기피해때문에 고심하던 많은 사람들이 첨단이 정말 좋다고 환성을 올리며 이런 좋은 벼품종을 육종해낸 과학자들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주었다.

과학자들의 눈굽은 저도 모르게 뻐릿이 젖어들었다. 그들은 저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삼가 아뢰이였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염기전딜성이 강한 벼품종이 드디여 태여났습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해에 염기전딜성이 강한 벼품종과 함께 강냉이대멸레피해가 심한 지역에 심을수 있는 내충성강냉이품종, 단백함량이 높은 감자품종도 국가품종으로 등록하였다. 제일 애로가 많고 힘들다고 하던 육종연구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은 연구사들인 선우철진, 리선옥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피땀은 람구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추위전딜성이 강한 벼품종, 염기전딜성과 당함량을 높인 사탕갈품종 등으로 해마다 계속 이어져나갔다. 그리하여 최근 3년동안에 모두 7개의 특성이 좋은 농작물품종들을 련이어 국가품종으로 등록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분원의 전반적인 투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수령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상전의 불길은 제놈연구소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첨단수준의 유전자소련을 개발할 때였다. 자그마한 유리기판우에 사람의 면역학적특성을 분석할수 있는 1,000여개의 검사점들이 집적된 이 소련개발에서 제일 난문제는 매 검사점들에 해당한 표준물질을 얻어내는것이였다.

첨단에로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2015년 한해동안에 만들어낸 표준물질은 겨우 10개미만이였으니 시련과 실패의 고비를 넘고넘으며 과학자들이 헤쳐간 고심참담한 람구의 생눈길을 한두마디의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수 있으랴. 이제 1,000개를 다하자면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일부 과학자들속에서는 이에 연구사업에서 신심을 잃고 나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유전자소련개발과제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분원일군들속에서도 론의가 분분하던 이 과제를 2016년 분원의 중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책임일군들은 과학자들속으로 들어갔다.

생물소련제작기술에서 앞선 나라들의 수준을 돌파하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다. 다름아닌 우리 분원의 과학자들을 믿으시고 통제로 맡겨주신 과업이다. 장군님께서는 이 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들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다 풀어주시였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힘들다고 중도반단한다면 나라의 생물공학의 한개 분야가 영영 주저앉게 된다. 우리 함께 분발하여 일어나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

책임일군들의 불같은 호소는 과학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고 유전자소련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분원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시약들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였다. 책임일군들부터가 혁신적인 발기들을 내놓았다. 유전자분석을 비롯하여 애로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기 위한 비상대책들이 속속 취해졌다.

이에 고무된 실장 박철민, 연구사 김영웅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2016년에 진행된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만도 2015년 한해동안에 만든것의 9배이상에 달하는 표준물질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이 큰 밑천이 되여 마침내 유전자소련개발에 성공하였다.

지난 1월 국가과학원 과학전시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생물공학부문 전시대에 전시된 엄기전딜성이 강한 벼품종과 추위전딜성이 강한 벼품종, 엄기전딜성과 당함량을 높인 사탕갈품종을 비롯하여 분원에서 새로 육종한 농작물들과 생물소련 등을 몸소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제일투사가 되려는 투철한 사상적각오와 신념을 지니고 첨단돌파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온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이렇게 크나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첨단에로의 지름길—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물공학분원을 찾으신 그날 세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과학자들의 만만한 야심이 비낀 여러건의 착상안들을 보아주시며 아주 흥미있다고, 좋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중에는 유전자공학기술에 의한 인슐린생산방법과 관련한 착상안도 있었다.

지난해에 분원의 과학자들은 유전자공학기술에 의한 인슐린생산방법을 확립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주사약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있다. 하지만 이것이 생물공학적방법에 의한 의약품생산에서 기술적난도가 대단히 높고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약물이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몇개 안되는 나라의 독점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를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주인공들이 걸어온 첨단에로의 길은 험치 않았다.

여러해동안에 걸치는 고심어린 람구의 길에서 인슐린제조에 필요한 균그루를 얻어내고 분리정제에 성공한 과학자들은 2016년에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도 락관적인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그때 과학자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열다섯단계나 되는 복잡한 제조공정, 공정들마다에서 요구되는 갈비싼 시약들…

남들이 걸은 길을 거의나 그대로 답습하다싶이 한 6년간의 연구결과로써는 앞으로의 대량생산을 실천적으로 담보하기 힘들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론문이나 시제품으로 남을 이런 연구결과를 놓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했다고 떳떳이 말할수 없지 않는가!)

실장 박사 최수성, 연구사 박세평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우리의 구체적인 실정과 조건에 맞고 현존토대가 받아들수 있는 인슐린제조공정을 새로 확립하기 위한 우리 식 창조의 길에 또다시 들어섰다.

스스로 걷는 람구의 생눈길에서 이들을 분발시킨것은 아직은 싹에 불과한 착상안들을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며 생물공학분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착상하고있는것을 보면 분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정신력과 비상한 창조정신, 애국열의가 높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였다.

분원의 책임일군들이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분석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아낌없이 바쳐온 피와 땀구의 열정은 마침내 귀중한 창조의 열매로 맺어졌다. 종전의 제조공정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제조원가를 대폭 낮출수 있는 우리 식의 인슐린생산방법이 새롭게 확립된것이다.

첫시작에 불과한 이 성과를 놓고 의학전문가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슐린이 나온것은 보건부문에서 하나의 혁명과도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었다.

단 몇달만에 이룩된 이 첨단연구성과로 하여 인슐린주사약에 대한 일부 나라들의 독점적지위에 파렬구를 내고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인슐린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우리의 두뇌와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분원의 앞장에 서온 줄기세포연구소에서도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이곳 과학자들은 값비싼 수입시약을 대신할수 있는 여러가지 줄기세포시약들을 자체로 연구제조한데 이어 줄기세포활성화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진공랭동건조기, 정온기 등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고 각지의 여러 병원들에 첨단재생의학기술인 줄기세포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나갔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성장한 나라의 권위있는 줄기세포연구집단으로서의 영예를 떨치였다.

분원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밑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피형전환기술개발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대며 람구의 길을 걸어온 과학자들도 피형전환효소유전자를 새롭게 설계합성하고 피형전환효소생산방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육종에서 이룩된 성과는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된 룡정어, 초어, 잉어와 같은 잉어과 물고기를 양어에 적극 도입할것을 목적으로 한 이 연구사업역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흥미있다고 하신 하나의 착상안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종전의 물고기육종방법을 답습하는 경우 새로운 룡정어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사업만 보아도 빨라서 2020년이 훨씬 지나서야 결실을 볼수 있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었고 몇년동안에 걸친 연구사업도 그렇게 진행되여오고있었다.

하지만 분원책임일군들은 결코 이것을 허용할수 없었다.

세계는 급속히 전진하고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기 위한 나라들사이의 총포성없는 과학기술전쟁은 지금 이 시각에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그와 더불어 첨단의 령역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첨단의 높이도 시시각각 갱신되고있다. 기성의 방법과 경험에 매달려 어물거리는 사이에 세계는 그만큼 비약할것이고 그때 가서 도달한 수준은 벌써 첨단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이 늦어지게 된다는것이였다.

김철원초급당위원장은 연구소로 다시 내려갔다.

언제까지나 남의 뒤를 따라갈수는 없다. 대담하게 우리 식의 지름길을 개척해야 한다! 결코 방도가 없는것은 아니다.

당책임일군의 이 말은 사실이였다.

비약의 지름길은 있었다. 생물공학적방법으로 얻어낸 성장속도가 빠른 물고기를 종고정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를 찾는것이였다. 그러자면 그때까지 잉어과에 한번도 적용해본적이 없고 리론적으로만 알고있던 물고기종고정방법을 알쌀이첼을 놓치지 않고 적용해야 했다. 당년치기로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보통 15년이상이라는 통정어육종기간을 단 7년으로 앞당길수 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실장 김민기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지난해 1월 이 물고기종고정방법을 통정어에 대담하게 적용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합리적인 실험공정을 세우고 필요한 설비도 자체로 만들어가며 과학자들은 미꾸라지를 리용하여 수십차례의 예비모의실험을 진행해나갔다.

이렇게 생소한 물고기종고정방법에 완전히 익숙한 과학자들은 통정어의 알쌀이첼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단번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끝끝내 성장속도가 3~5배, 생산성이 5배이상 되는 새 품종의 통정어를 얻어내고야말았다.

기성의 경험과 방법은 이렇게 타파되였다.

우리 식, 여기에 첨단에로의 지름길이 있고 비약의 도약대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나날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이 철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 ※

첨단은 결코 멋어서있는 목표가 아니다. 첨단을 돌파했다고 뒤돌아보며 자만하는 순간이면 그것은 더이상 첨단이 아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비약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첨단전구에 남아있을수조차 없고 결국에는 현시대의 약자로 밀려나게 되며 기술의 노예로 굴러떨어지게 되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이룩해가고있는 첨단생물공학연구성과는 참으로 귀중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당이 더욱 귀중하게 내세우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첨단돌파전의 나날에 이들 모두가 심장깊이 간직한 투철한 사상적각오와 신념이며 온몸으로 체득한 우리 식 창조본때이다.

당과 혁명, 시대와 조국앞에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해 생물공학분야의 첨단을 끊임없이 돌파하며 우리의 주인공들이 가야 할 람구의 길, 창조의 길은 멀다.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따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람구의 길에 더욱 힘차게, 더욱 진하게 새겨가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자욱자욱이 주체조선의 새로운 승리를 추동하는 첨단과학기술성과의 알찬 열매로 이어지리라는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본사기자 려명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모범선동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결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동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선전일군의 모습입니다.》

우리 당의 초급선전일군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심장에 새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모범선동원의 영예를 지닌 선동원들을 소개한다.

열정의 인간이 될 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주강직장 유색금속용해작업반 동순희동무

선동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힘있는 기업소, 영웅적인 기업소로 내세워주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선동원 동순희동무의 생활이 이에 대답을 준다.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쉼없이 파도치는 바다처럼 열정이 식을줄 모르는 인간, 불같은 선동원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두해전 총정의 70일전투때였다. 탄광들에 보내줄 압축기부속품생산으로 련일 만가동하던 용해로가 가동을 멈추었다. 혹연도가니가 그만 터져나갔던것이다. 보름동안의 작업과제를 한주일동안에 끝내자고 당세포결정에 쪼아박고 전투를 벌리던 작업반원들은 맥을 놓고 털썩털썩 주저앉아버렸다.

용해공, 주형공들을 도와주던 동순희동무의 가슴에는 제가 앉는것 같았다.

(이렇게 맥을 놓으면 당앞에 뱃세다진 날자를 보장할수 없지 않는가. …)

작업반원들에게 그는 질질히 말했다. 압축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룡성로동계급에게 주신 간곡한 유훈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압축기생산은 어떻게 되며 유훈은 누가 관철하겠는가. …

그리고는 꺼멓게 식어들어가는 쇠물을 퍼내기 시작하였다.

남자들도 어려워하는 일을 하느라 애쓰는 선동원을 따라 작업반원들은 한명두명 일어났다. 그들은 힘을 합쳐 도가니를 교체한 다음 원료를 장입하고 불을 지폈다. 그러느라니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있었다.

쇠물을 다 끓여 주형작업을 하려면 아직은 퍼그나 기다려야 하였다.

그런데 로에 불을 지핀 다음 없어졌던 선동원이 땀을 철철 흘리며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의 두손에는 굳직한 보자기가 들려있었다.

《자, 동무들. 쇠물이 끓기 전에 어서 식사를 하자요.》

어느 사이엔가 집에 달려가 저녁식사를 준비해가지고온 선동원을 보는 작업반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던것이다.

작업반에 녀성이라고는 선반공인 동순희동무 혼자였다. 살림이 넉넉치는 못했지만 그는 살뜰한 누이, 다심한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자주 후방사업을 하면서 작업반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군 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대중의 앞장에 서는것, 이것이 동순희동무의 특징이고 장점이다.

언제인가 용해과정에 로뚜껑의 철판이 녹아 작업에 지장을 받을 때였다.

로는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면서 작업반원들과 함께 어느 한곳에 달려간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끝내 굳직한 철판을 파낸 그는 그길로 제관직장에 달려가 알맞춤하게 절단하여 로에 씌움으로써 용해작업을 중단없이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그후 선동원의 발기로 작업반에는 짬시간마다 철판, 내화벽돌을 비롯한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예비부품과 로보수용자재를 확보해놓는 체계가 세워졌다.

바로 이런 열정의 인간이기에 동순희동무는 다른 동무들의 의견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제 고집만 부려 집단의 단합과 생산에 지장을 주던 한 작업반원을 꾸준히 설복하고 교양하여 혁신자로 만들었으며 뜻밖의 일로 눈을 다치고도 일터를 떠나지 않는 작업반원의 병치료에 모든것을 깡그리 바칠수 있었다.

룡성로동계급의 검사관철, 자력갱생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불같이 살아온 그에게 당에서는 모범선동원이라는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었다.

동순희동무의 삶은 말해준다. 열정의 인간이 되라. 혁명열, 투쟁열로 온몸을 불태우라. 그럴 때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당초급선전일군이 될수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향란

과학농사와 선동원의 역할

금강군 현리협동농장 제9작업반 2분조 김영순동무

20여년을 선동원으로 사업한 금강군 현리협동농장 제9작업반 2분조 김영순동무의 선동활동에는 주목되는 점이 있다.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여야 선동원의 본분도 다할수 있다는것이다.

지난해 그가 분조에서 발랭상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내용으로 선동사업을 진행하였을 때였다.

그에 대하여 일부 분조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서지 못했다. 지금의 농사방법도 편찮은데 구태여 경험도 없는 새 방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최근 몇해동안 알곡증수를 높아졌을뿐아니라 분조가 군적으로 우수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다보니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 성과를 거둔것을 놓고 분조원들은 만족을 느끼고있었다.

하지만 김영순동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새것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비약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는 일부 분조원들의 그릇된 태도를 놓고 자기 사업에 공백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누구나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게 하자. 그러자면 선동원부터 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분조원들을 교양할수 있다.

이것이 김영순동무의 생각이였다.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갔다.

그는 우선 과학농법에 정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장의 기술일군을 찾아가 발랭상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개별강의도 받았고 과학농사로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들에 찾아가 경험을 배워오기도 했다.

이렇게 김영순동무는 새로운 영농방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분조안에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선동활동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그는 분조원들이 모이는 기회마다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당정책에 립각하여 해설해주고 선진농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인 단위들의 경험도 실례를 들어가며 들려주었다.

또한 자기가 담당한 포전에 직접 발랭상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이였다.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선진영농방법의 우월성을 세워주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하였다.

그의 선동활동의 실효는 컸다. 과학기술을 대하는 농장원들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모든 분조원들이 선진영농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기가 담당한 포전들에 그것을 적극 받아들였다.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해 가을 김영순동무의 포전은 물론 2분조의 정보당 평균수확고가 높아졌다. 결국 한해농사총화에서 분조는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과학농사의 맛을 실지로 맛보았다.

그들은 지난해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으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열의에 넘쳐있다.

이것은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는데서 선동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혁철

봄철국토관리사업에서 성과 확대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450여km의 도로기술개건과 990여km의 강바닥파기, 140여정보의 호안림조성을 비롯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성, 각 도국토관리부문 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국토관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통이 큰 목표밑에 단계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평양시에서 봄철국토관리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수백km의 포장도로대보수와 150여km의 강바닥파기를 진행하였으며 수천세대의 살림집보수와 공원, 유원지 꾸리기사업을 질적으로 끝내였다.

평안남도에서는 20여km의 제방건설을 짧은 기간에 결속한데 이어 강바닥파기, 물줄기바로잡기를 적극 다그치는 등 큰물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80여km의 제방을 대보수하고 1만여정보의 큰뚝다락밭을 조성하였으며 수백정보의 밭에 약초를 심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산이 많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강도와 강원도에서는 응벽쌓기, 로반확장 등을 힘있게 내밀어 100여km에 달하는 도로들의 기술상태를 개선하였으며 주요도로들에 안전보호말뚝을 설치하고 수십개소에 양어장도 새로 건설하였다.

황해남도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3 000여세대의 살림집을 개건보수하고 10여km의 해안방조제보수와 700여정보의 토지정리를 최단기일에 진행하였으며 황해북도에서는 380여정보의 토지복구를 제때에 끝내여 올해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도 호안림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에 달하는 나무를 심고 1만여km의 물길과 수백동의 공공건물에 대한 보수를 끝내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더욱 높이 발휘하며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발전소들에서 기술개건을 더욱 다그쳐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발전효률제고에서 틀어쥔 두가지 고리

허천강발전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허천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3대의 효률높은 X형수차를 새로 제작도입하고 10대의 현대적인 수자식조속기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전력생산계획을 일별, 월별로 빛나게 초과완수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현행전력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실속있게 다그쳐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생산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물이다. 물을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에 따라 전력생산성과가 좌우되는데. 이것을 잘 알고있는 발전소의 일군들은 효률높은 X형수차와 현대적인 수자식조속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같은 물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일군들의 작전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자체의 기술기능력량을 더욱 강화하여 X형수차도입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것이다.

수차날개제작과 설치과정을 놓고보자.

X형수차의 도입공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군들은 날개제작에서 일련의 부족점들을 포착하였다. 종전방식대로 날개를 만들다나니 진동현상이 나타나고 수차효률이 예상보다 낮았던것이다.

원인은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토대에 맞게 합리적인 제작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아직 낮은데 있었다.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해결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이들은 발전소적인 실력판정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현장로동자들속에서 재능있는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고 날개제작을 맡은 전기기계직장의 기능공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X형수차제작을 위한 기술강습과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여 모두가 설계의 요구를 환히 꿰들도록 하였다.

여러 분야의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널리 인입하여 자체의 제작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이빠진 공정과 설비들을 시급히 보충하였다. 기사장 량철만동무와 기술발전과장 김영수동무, 설계실의 리철훈, 조현동무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X형수차제작을 위한 기술준비사업을 실속있게 한데 기초하여 현대적인 플루러에 의한 모의설계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부루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실지 날개제작을 바로하지 못하면 수차효률을 예상대로 높일수 없다. 기술공정원 서광우, 작업반장 김은식동무를 비롯한 전기기계직장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주인다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날개제작의 모든 공정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였다.

이들은 합리적인 부분품가공방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예정보다 20일이상이나 앞당겨 X형수차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작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발전소의 기술기능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X형수차제작을 질적으로 다그친 결과 짧은 기간에 3대의 X형수차가 새로 도입되여 2호발전소에서의 수차효률이 종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년간 수천만kWh의 전력을 증산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이곳 일군들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틀어쥔 고리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의 창조방식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수자식조속기를 우리 식으로 제작한것이다. 종전의 기계식조속기에 비할바 없이 성능이 우월한 현대적인 수자식조속기의 제작에서 중요한것은 조종기판이였다.

기존의 조종기판으로써는 허천강발전소의 현실조건에 맞는 수자식조속기를 제작할수 없다는것을 파악한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대담하게 그 설계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조할것을 결의해나섰다.

탐구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아직은 현대적인 조종기판의 설계를 해본 경험도 없는 실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창조하자니 걸음걸음 난관이 막아나섰다. 여러차례의 시험에서 또다시 실패하였을 때 주요부분품들을 다른데서 들여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체의 기술기능력량을 강화하고 사업조건보장을 따라세우는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술자, 기능공들의 심장속에 자력갱생, 견인불발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바로 심어주는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오재경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깊이 들어가 자력자강의 길만이 우리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공업시험소의 박일남, 권용석, 김형재, 손일영, 김명진동무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앞선 설계프로그람들을 적극 받아들여 조종기판설계를 끝끝내 우리 식으로 완성하고야 말았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이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이곳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전기기계직장과 기술혁신작업반에서는 여러 부속품가공과제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10대의 수자식조속기를 제작도입함으로써 수력발전관리국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고 여러 발전소들에 확대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김룡철, 장남철, 문정혁동무를 비롯한 4호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자식압력계 및 류량측정장치를 새로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허천강발전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자체의 기술기능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구체적인 현실조건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갈 때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실력전의 불바람을 일으켜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전력증산도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4호보이라의 증기생산량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미분탄선별기제작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종전보다 미분탄선별기의 성능을 부쩍 높이고 현행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입에서 단번성공하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제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는 배짱을 지니고 두뇌전, 실력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였다.

김창일, 림광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유능한 기술자들과 함께 대보수직장의 기능공들을 망라하여 자체의 기술기능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설계와 설비제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갔다. 생산부기사장 장진남동무와 열조종실의 전봉근, 박대일동무들이 피타는 사색과 고심어린 탐구를 기울여 콤퓨터에 의한 모의설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림종인, 곽승철, 리천하동무를 비롯한 대보수직장의 일군들과 기능공들이 효률높은 미분탄선별기를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긴장한 제작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어렵고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마련하고 합리적인 가공방법들을 련이어 받아들이면서 짧은 기간에 부분품제작과제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수하였다. 하여 한주일만에 2대의 효률높은 미분탄선별기를 제작하고 4호보이라에 도입하여 단번성공함으로써 종전보다 증기생산량을 1.1배이상으로 끌어올리였다.

뿐만아니라 능률높은 공기분리장치를 비롯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3호보이라의 대보수기일을 일정보다 훨씬 앞당기면서도 더 많은 증기를 생산할수 있는 밑천을 얻어놓았다.

두뇌전,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높이 세운 1.4분기와 4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며 창조와 비약의 한길을 따라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운영호기대수를 늘이는데 큰 힘을

서두수1호발전소 전력생산자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서두수1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발전소에서는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발전기운영호기대수를 늘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쉼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갈 때 당이 준 그 어떤 과업도 수행할수 있다.

이것이 이곳 발전소전력생산자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새겨안은 전력생산자들은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할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발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지난 시기보다 매일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신심드높이 떨쳐나섰다.

발전기운영호기대수를 더 늘인 그들은 예비호기까지 만가동을 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혁명적열정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기존공식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답게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선구자가 되자.

이런 불타는 열정, 드팀없는 신념을 안고 발전소안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무슨 일을 해도 제힘을 믿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당의 뜻대로 발전설비의 현대화, 콤퓨터화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면서 과학과 기술을 틀어쥐고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는것으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소장 석병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높은 전력증산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떨쳐나선 이곳 전력생산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새 기록창조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 전력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대홍단1호발전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현지보도

혁신의 불바람 몰아친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에서

생산의 동음 높이 울려퍼지는 여기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현장이다.

《쏴—쏴—》, 《웅—웅—》

즐비하게 늘어선 육중한 보이라들, 반부하를 건 미분탄급탄기들과 보조설비들의 우렁찬 동음을 페부로 절감하며 우리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전력생산자들의 투쟁소식을 전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전력설비들에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 많은 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보이라조작반의 각종 계기바늘을 주시하며 부지런히 오가는 운전공들인 정동흠, 조명호동무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설비관리운영을 철저히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해나갈 열의가 비껴있다.

《5호보이라 미분탄공급상태 좋다.》

《2호보이라 증기압력 정상이다.》

교대장에게 보이라들의 가동상태에 대한 보고가 연방 들어온다.

《2호보이라 증기압력 유지하라. 5호보이라 미분탄공급량 증가하라.》

교대장 리수길동무가 흐뭇한 마음으로 새 지령을 떨군다.

6호보이라현장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보이라의 증기생산량을 더욱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도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로동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는 초급당위원장 김인성동무, 기대들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순회점검을 깐깐히 진행하고있는 조작공, 운전공들.

작업장한켠에서는 직장장 고광준동무와 담당기사들이 보이라 효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우리는 직장장 고광준동무를 만났다.

《교대시간이 지났는데도 스스로 현장을 뜨지 않고 일하는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온 직장이 새 기술도입과 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의 눈앞에 1호보이라 석탄분쇄기에 불을 장입하는 전력생산자들의 작업모습이 안겨온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린다. 허나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세충천하여 맡은 일을 겹싸게 해제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미분화계통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게 된 흐뭇한 미소가 어려어있다.

《쉰다는게 말이 됩니까? 150%품이야!》

석탄분쇄기를 맡은 광훈동무가 직장장에게 하는 말이다.

평범한 로동자의 말이 감동깊게 들려온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새 기준, 새 기록창조에로 내달리는 로동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이 뜨겁게 느껴진다.

그렇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킬데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어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은 확신적인것이 아닌가.

이곳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모습이 군상처럼 미덥게 안겨온다.

김학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힘을 넣어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남포시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시에서는 7개의 학교교사를 개건보수하였으며 콤퓨터를 비롯한 120여종에 4만 6 500여점의 실험실습설비, 교구비품들을 마련하여 교육기관들에 보내주었다.

당, 정권기관 일군들은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교육기관들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농촌경리위원회와 남포항, 시은행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세멘트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들과 수십대의 콤퓨터, 역정렬케비콘을 남포해운대학, 남포농업대학, 남포제1중학교 등에 보내주어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꾸리는데 이바지하였다.

학교후원사업이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시체신관리국과 시해갑문사업소, 남포해운사업소에서도 교구비품들과 보수용자재를 대학들과 학교들에 지원하였다.

령남배수리공장과 온천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백점의 실험실습설비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정보기술학습실과 기초기술실습실을 꾸리는 사업이 진행되는 와우도구역 서해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단위들에 보내주었다.

강서탄광과 대안전선유리공장 남포유리그릇분공장에서도 많은 교육기자재들과 후방품자들을 담당한 학교들에 보내주어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

인재육성에 이바지하는 교과서, 참고서들을 출판

최근 고등교육도서출판사에서 인재육성에 이바지하는 220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내놓았다.

이곳 일군들은 당의 교육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교종별교과서들과 여러가지 참고서들의 출판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기자, 편집원들은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일념으로 집필, 편집사업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다.

정보기술분야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새 도서들이 출판되였다.

전공분야에 필요한 다방면적이며 깊이있는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반영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는 교육내용들로 일관되여있는 190여종의 교과서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출판사에서는 직업기술대학들의 특성에 맞는 도서편집사업에도 힘을 넣어 산림보호기술, 농작물유기영양관리와 같이 해당 부문과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실천형기술인재들을 양성할수 있는 수십종의 참고서들을 편집발행하였다.

이와 함께 《현대녀성들을 위한 미용상식문답집》, 《세계에서 이름난 카정로리만들기》 등 근로자들의 상식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다매체전집물들도 내놓았다.

고등교육도서출판사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교육사업을 개선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련방공산당 아무르주지부위원회대표단 도착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아무르주지부위원회 제1비서인 로만 꼬뵈조브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아무르주지부위원회대표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일행이 떠나갔다

데이비드 말드러우 비슬리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과 일행이 11일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력포구역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는데 있다.

력포구역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는 과정에 거둔 성과는 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서 초급당위원회가 선차적으로 해결한 문제가 있다.

이 운동을 대하는 사람들의 사상관점문제이다.

현영철초급당위원장이 농장에 배치되여왔을 때의 일이다.

당시 농장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가 두개 작업반뿐이였다. 대다수 작업반들이 농사는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사업 등에서 뒤떨어져있었다.

농장을 추켜세울 방도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고 생각한 초급당위원장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경의목표에 농장마을을 일신시키는 문제를 반영하고 그 관철에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

하지만 일판을 전개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쳤다.

일부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자체의 힘으로는 해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된것이다. 이무지리 보고 말을 퍼라는 속담도 있듯이 당시의 실정에서는 조건이 어렵기때문에 어림도 없다는것이였다.

목표가 높고 일감이 방대한것만은 사실이였다.

이 사실을 통해 초급당일군은 농장이 추서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명백히 찾았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사상관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농장을 추켜세울수 없다고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그 방법론을 찾아나갔다.

초급당위원회는 농장의 운명을 걸머진 일군들의 사상관점부터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실천투쟁속에서 기수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은 사실이 그 실례로 된다.

농장의 사업계획에 따라 꾸리기사업이 시작되였는데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때 초급당위원회는 농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공세를 들이대는 한편 이 사업에 농장일군들이 앞장서도록 하였다. 건설을 담당한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격대대장으로 되고 당일군들은 돌격대에 망라되였다.

소재지마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남새제9작업반지구의 살림집들을 건설하던 때였다.

당시의 형편에서 수십동의 살림집을 단숨에 짓는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이런 때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낀것이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이였다. 초급당일군들과 마음을 맞추어 리영길관리위원장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번모되기 시작한 남새제9작업반지구의 모습과 함께 농장일군들의 사상관점도 달라져갔다. 농장일군들격대의 투쟁모습은 작업반원들에게 큰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통절히 느끼기 시작한것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농장원들에게 옳은 관점을 심어주기 위한 사상전의 포화를 더욱 드세게 돌이댔다. 이에 고무된 작업반원들이 스스로 전투장에 뛰여들었다. 이렇게 되여 살림집건설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낼수 있었다.

농장일군들격대는 그후 본부락의 30동의 살림집을 빠른 기간에 일떠세우는데서도 기수적역할을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살림집건설전투를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주었다. 그들의 자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것은 몇해전 원북마을을 단 몇달동안에 훌륭히 일떠세운것을 놓고도 알수 있다. 그해 여기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는데 그때 참관자들은 훌륭한 가구들이 입식으로 갖추어진 80여동의 살림집들과 작업반의 공공건물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였다는것을 알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2년전 본부락의 150동의 살림집에 이어 지난해에도 홍교지구의 백수십동의 살림집을 훌륭하게 일떠세운 사실을 놓고도 농장원들의 집단력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잘 알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서 초급당위원회가 다음으로 중시한 문제는 실천을 통해 대중운동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킨것이다.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따라배우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게 한것이 좋은 실례로 된다.

초급당위원회는 농장안의 작업반초급일군들로 앞선 작업반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자체의 튼튼한 후방토대를 갖추고 공급사업을 잘하고있는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에 중점을 두었다.

보여주기에 참가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멋지게 꾸려진 작업반들의 면모와 그 단위들의 후방기지들을 돌아보면서 많은것을 배웠다. 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후방토대를 그쯘히 갖추어놓을수 있게 된데 대한 경험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집단의 위력을 발동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립장에서 사상적으로 탈라불도록 단위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을 불러일으켜 단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한몫씩 맡고 나서니 농장원들도 내세운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그 과정에 짧은 기간에 단위들이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번모되였다. 그리고 단위들마다 후방토대도 그쯘히 갖추어져 농장원세대들의 생활도 향상되여갔다.

축산토대가 튼튼해지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니 농사에서도 혁신이 이룩되였다. 년간 알곡생산과 남새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된것이다.

대중운동이야말로 자기자신들을 위한 사업이며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농장을 추켜세우고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는것을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실천을 통해 체험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성철부위원장을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나날 농장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대중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 과정에 남새제1작업반과 남새제5작업반 그리고 최향숙동무가 일하는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농장은 모범채육농장, 모범축산농장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얼마전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게 되였다.

※ ※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농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60돐을 맞이하게 된다.

뜻깊은 기념일을 앞두고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농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다시금 분발해나서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며 제손으로 자기의 행복을 꽃피워가는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실천속에서 깊이 절감한 이들이다.

이룩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날에날마다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처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사기자 장철범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세차게 일어번지는 과학기술중시열풍

평양체육단에서

최근 평양체육단 선수들이 올해의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를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지난 3월에 박영미선수가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녀자레스링 53kg급경기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단연 우승한데 이어 강금성선수는 남자자유형레스링 57kg급경기에서 1위를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한편 김수정선수는 제11차 국제체조련맹 세계컵기계체조개인기재별경기대회 녀자마루운동에서 정시에 련마한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4월에는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김혜성, 김혜경선수들이 1, 2등을 쟁취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례년에 보기 드문 국제경기성과도 자랑할만 한것이지만 더욱 주목되는것은 평양체육단에서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훈련과 경기는 틀림 후비육성과 체육기자재생산에 이르기까지 체육부문의 모든 사업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체육과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체육의 과학화실현, 이것은 평양체육단이 종목별체육기술발전에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는 비약의 열쇠이다.

하다면 올해에 이곳 체육단에서 이를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틀어쥔것은 무엇인가. 다름아닌 감독들속에서 과학기술중시열풍을 부쩍 높이는것이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안정희부단장을 비롯한 체육단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감독들속에서 앞선 체육과학기술보급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모든 종목별감독들이 철저히 집행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하게 벌리는 동시에 운영일지를 정상적으로 리용하고 그 정형을 매일 당, 행정적으로 검토히 총화하고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있다.

해당 연구사들이 체육과학기술정보수집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올해에만도 종목별체육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를 비롯한 수천건의 가치있는 정보자료들을 자료기지에 더 구축해놓음으로써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이 심화되고 최근년간에 종목별사무실들에 형성해놓은 국부망을 통한 과학기술보급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감독들속에서 과학기술경쟁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졌다.

어느 감독이나 교수훈련과 경기지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풀어나가려는 기풍이 차넘치고있다.

남자축구팀을 맡은지 몇달 안되는 김영준감독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리용하여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면서 안목을 더욱 넓힌 김영준감독은 연구사들과 협동하여 선수들의 육체기술지표측정결과에 대한 분석에 달라붙었다. 앞서 진행된 측정결과와 대비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나가는 과정에 훈련량과 강도를 더욱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되였다. 하여 감독은 교수훈련계획을 보다 과학적인 수준에서 갱신함으로써 좋은 훈련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예술체조책임감독 안봉희동무의 과학기술학습열의도 매우 높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자기 종목운영날에는 물론 매일이 과학기술보급실에 와서 열심히 학습하고 탐구하는 그의 열정에 누구나가 감탄하고있다.

선수들의 실력과 팀의 경기승패는 감독들에게 달려있다. 평양체육단 선수들이 태양절경축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예술체조 집체종합에서 단연 1위를 쟁취한 성과 역시 예술체조감독들의 이런 적극적인 과학기술학습기풍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체육단에서는 3자결합일지리용에도 큰 힘을 넣어 과학기술중시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이것은 선수들이 훈련을 한번해도 효률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명실공히 육체기술전술발전을 안아올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자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다.

체육단에서는 종목별감독, 체육과학연구사, 의료연구사들이 매일 훈련과정에 협동작전을 진행한 내용을 일지에 정확히 기록하는것과 함께 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철저히 안받침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내세우고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총화도 구체적으로 따라세우고 있다.

이 나날 매일일의 훈련과정에 감독들과 연구사들의 창조적협조가 더욱 강화되였다. 또 훈련결과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키면서 다음날 훈련을 보다 과학적으로 조종할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세움으로써 훈련의 효과성이 무단히 높아지고 그와 동시에 선수들의 훈련열의가 비상히 고조되였다.

지금 레스링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는 새로운 훈련방법들이 도입되고있다.

이것은 선수들이 어떤 정황속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수 있는 높은 육체기술적능력을 다져주기 위해 열정을 바쳐가는 이곳 감독,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탐구자세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지난 3월 중순 체육단에서는 중요한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머지않아 진행되는 국제경기에서 체육단선수가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방도토의와 관련된 협의회였다.

체육단 일군들과 감독, 연구사들이 참가한 협의회에서는 뜻밖의 일로 몸상태가 나빠져 일정한 기간 훈련을 하지 못했던 선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모두가 지혜를 합쳐가는 과정에 얼마든지 경기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를 찾아냈으며 선수의 몸상태조성으로부터 심리조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졌다. 이에 기초하여 당조직에서 선수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고 또 훈련지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한 결과 선수는 마침내 국제경기에 출전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체육단일군들은 선수별영양공급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보다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체육의 과학화를 떠나 금메달을 생각할수 없다.

천리길도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올해벽두부터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체육기술발전의 새로운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는 평양체육단일군들과 감독, 연구사들의 불같은 열정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들로 이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오철룡
사진 김광림

승리의 열쇠

◇ 온 나라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시대의 벅찬 승경에 발맞추어 우리 체육인들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체육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차정남 체육성 국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는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마다에도 세찬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고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승리의 열쇠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주고있습니다.》

이렇듯 온 나라 체육인들은 우리 당이 밝혀준 비약의 지름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 체육강국건설에서 승리의 열쇠는 체육을 과학화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의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과학기술연구성과 등에 토대하여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체육과학이 적극 도입되여 새로운 훈련방법과 기술수법, 전술체계들이 끊임없이 태여나고있으며 그로 하여 놀라운 경기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경기장바닥과 체육기재, 운동복과 관중의 옷색갈 지어 생활습성 등이 선수들에게 주는 생리적 및 심리적효과까지도 과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있는 육체적기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경기성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제경기무대는 체육과학기술의 치렬한 경쟁마당이다.

현실은 총포성없는 전장과도 같은 국제경기무대들에서의 성과는 욕망 하나만으로는 해결될수 없고 어제날의 낡은 경험에 매달려서는 금메달을 생각할수 없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체육을 과학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렇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결사관철, 바로 여기에 체육부문에서도 우리의 자강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비약의 지름길을 여는 승리의 열쇠가 있으며 체육강국건설의 전초병들인 우리 체육인들의 참된 애국이 있다.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하는 시대가 우리 체육인들을 보람차고 값높은 애국의 전구에로 부르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높이 과학기술봉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자.

일군이든 감독이든 누구나가 당이 안겨준 승리의 열쇠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체육의 과학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지혜와 열정을 총폭발시켜나가야 한다.

감독, 지도교원들은 체육과학기술을 틀어쥐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자각하고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 체육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며 체육과학연구사, 의료연구사들과의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체육과학부문의 과학자들과 체육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당의 품속에서 다져온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 높은 훈련성과, 경기성과를 과학기술적으로 든든히 안받침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물심량면의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려 체육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태양복속에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른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려는 우리 체육선수들의 정신력은 하늘에 닿고있다.

여기에 체육과학기술의 힘이 안받침되면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전례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는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는 더 많이 창조되게 될것이다.

모두다 피끓는 심장을 다 바쳐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창조의 불길, 세계를 딛고 올라서는 우리의 체육과학기술로 체육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총돌격 앞으로!

가치있는 기재들이 창안되기까지

평양외국어대학체육단에서

지난 3월에 진행된 제6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는 평양외국어대학체육단에서 내놓은 운동만응속도측정기재와 교치성발달기재, 체육선수영양조직프로그람을 비롯한 6개의 제안들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제안들에는 체육과학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사들뿐아니라 여러 감독들의 고심어린 노력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의 과학화는 체육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지난 기간 체육단에서는 체육의 과학화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다.

우선 과학기술보급실을 손색없이 꾸려놓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드는 한편 악력계, 피하지방측정기를 비롯한 선수들의 운동능력 및 기능검사에 필요한 기재들을 갖추어놓는데도 품을 들였다.

또한 실력이 높은 성원들로 과학실을 꾸려 연구사업을 앞세우는데도 힘을 넣었다.

그리고 종목기술발전에 의의가 있는 연구성과가 나오면 훈련과 경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체육의 과학화를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없었다.

해당 연구사들뿐아니라 선수육성의 직접적담당자인 감독들도 체육과학발전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말하자면 훈련과 경기의 조직자, 집행자인 감독들이 높은 과학적자질을 갖출 때만이 우수한 선수들을 키워낼수 있는것이다.

하여 체육단일군들은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 감독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우선 감독들속에 체육의 과학화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웠다.

특히 일부 감독들속에서 선수들의 훈련조직과 지도에만 치중하면서 체육의 과학화사업을 소홀히 대하는 관점을 뿌리빼도록 하였다.

과학강연, 실무학습, 최신과학기술자료를 보여주는 사업 등을 더욱 활발히 벌려 감독들이 체육과학기술지식을 적극 습득하고 훈련지도에 활용해나가도록 하였다.

체육단일군들이 이 사업을 밀고나가면서 중요하게 틀어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감독들을 키워내는데 적극 참가시킨것이다.

레스링감독 김동립동무만 놓고보더라도 지난 시기 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지도하면서 교치성을 발달시키는데 힘을 넣어왔다.

그러나 훈련에 필요한 기재가 부족한것으로 하여 낡은 훈련지도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체육단에서 진행하는 과학강연과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의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였고 필요한 기재를 창안제작하여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게 되였다.

김동립동무는 세계적인 자료들도 연구하고 해당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재를 창안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불타는 열정을 다 바쳐 그는 끝끝내 교치성발달기재를 제작하게 되였다. 이 기재는 선수들의 교치성을 발달시키는데서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교수훈련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이와 함께 김성환동무를 비롯한 감독들도 기재개발에 적극 떨쳐나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감독들은 가치있는 기재들을 창안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체육과학기술지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고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도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 단위의 경험은 체육의 과학화사업에서 감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는가에 따라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선수후비육성에서 중시한 문제

남포시 천리마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는 우수한 체육종목들의 패권적지위를 이어나가며 체육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최근년간에 남포시 천리마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비결은 지도교원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과학적인 교수훈련지도방법들을 적극 창조하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은데 있다.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개선하자면 선수후비들을 옳게 선발하는것과 함께 과학적리치에 맞게 기초기술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지도교원들의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학교일군들은 지도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어왔다.

학교에서는 자질향상을 위한 주별, 월별, 분기별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전공실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는 한편 과학강연과 교수합평회, 경험토론회 등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모든 지도교원들이 높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수훈련지도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우선 정보기술학습실을 통하여 종목별에 따르는 세계적인 자료수집과 함께 최신체육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웠다.

또한 모든 지도교원들이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직접 연구하고 교수훈련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 나날에 지도교원들의 자질과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은 몰라보게 올라가게 되였다.

특상지도교원 김철성동무를 놓고보더라도 지도교원으로 사업한 년한은 많지 않지만 과학적인 교수훈련방법을 받아들여 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는 학생들의 속도문제해결을 선수후비육성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보고 그 실현을 위하여 사색을 심화시키며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기능성육체훈련방법을 교수훈련에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매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애썼다.

또한 년간대주기교수훈련조종지원체계프로그람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몸상태와 기술상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들의 육체기술적능력과 인내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 지원체계프로그람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2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54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륙상경기에서 10개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고 올해에 진행된 전국적인 경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안아왔다.

이뿐이 아니다.

통구지도교원 박일만동무도 통구훈련지원프로그람을 교수훈련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학생들의 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고 전국적인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쟁취하도록 하였다.

체육의 과학화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학교에서는 지난해 선수후비육성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보다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목표를 내세운 학교에서는 지도교원들의 기술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이고 교수훈련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이들처럼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하자

홍원군 읍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최근년간 홍원군 읍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해마다 알곡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도 농장에서는 당의 뜻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동해안농사에서 장훈을 불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내면 땅의 물리적성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정보당 알곡생산이 오른다. 이것은 땅다루기도 과학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농장 일군들이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한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몇해전 농장에서는 여러 포전에 시험적으로 소식재배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그런데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어떤 포전은 밀식재배를 한 포전보다 소출이 떨어졌던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관리위원장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농장의 기술력량을 동원하여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토양을 분석하였다.

결과 지력을 높이는 사업도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알곡생산을 늘일수 없다는 대답이 나왔다.

전반적인 포전들이 무식질함량은 물론 미량원소 등이 부족하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무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고 하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때 그들은 농장안의 포전들을 지력에 따라 상, 중, 하로 가르고 농사차비기간에 목표하였던 자급비료를 무조건 실어내도록 대중을 조직동원하였다.

그리고 도시거름을 많이 실어들여 포전들에 내는것과 함께 바다가에 위치한 유리한 조건에 맞게 바다물을 적극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온 농장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농장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기술지도를 앞세워 농장원들이 신심을 가지고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도록 하였다.

모두가 떨쳐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였다. 자기 포전의 특성을 알게 된 농장원들은 여러가지 거름을 구색이 맞게 실어냈다.

가을의 결실은 알곡증산의 큰 예비는 지력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정보당 알곡생산이 그 전해보다 훨씬 올랐던것이다.

농장의 일군들이 다음으로 잘한것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포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실무수준을 높이도록 한것이다.

그 실례의 하나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영농작업을 작업반기술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술지도를 앞세우면서 진행하여 농장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킨것이다.

결과 영농공정들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들이 기술적요구대로 힘있게 추진되였다.

이것이 그대로 영농실적으로 나타났다. 농장에서는 모내기와 벼가을, 강냉이가을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였다.

특히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져 정보당수확고가 훨씬 높아졌다.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당의 뜻대로 과학농사에로 모든것이 지향되도록 기술지도를 짜고들면서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준다면 어느 농장에서나 장훈을 부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초소의 소식으로 넘치는 기쁨

편지가 왔다.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병사에게서 풍년가을을 마중해가는 청단군 심평농장 협동벌에 기쁜 소식을 전하여왔다.

초소로 떠나던 모습이 어제런듯 눈에 선한데 벌써 자랑을 담아, 기쁨을 담아 보내온 병사의 편지이다.

모판마다 실하게 자라는 벼모들의 모습을 그려보는지 아니면 날마다 푸르러가는 고향의 드넓은 벌을 그려보는지 글줄마다 뜨거운 정이 넘쳐나고 귀중한 조국을 굳게 지켜선 병사의 억센 힘이 넘쳐난다.

고향의 이름으로 뜨겁게 약속하자. 그대는 초소에서, 우리는 협동벌에서 우리의 조국을 더욱 빛내여가자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충성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13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수영경기관에서 수산성체육단, 룡남산체육단, 궤성강체육단, 수양산체육단, 원봉산체육단, 중앙체육학원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수영경기가 있게 된다.

다음주에 진행되는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과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자 1부류축구련맹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3일 4.25체육단에서 남자
4.25:갈매기
리명수체육단에서
리명수:소백수
김일성경기장에서
제 비:선 봉

김일성경기장에서 녀자
경공업성:내고향
제 비:갈매기
압록강체육단에서
압록강:봉화산

19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경공업성:선 봉
압록강체육단에서
압록강:정 양

4.25체육단에서 녀자
4.25:정 양
묘향산:월미도
소백수:봉화산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인터네트홈페지 《구국전선》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리행에로 불러일으키는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판문점선언의 빛발따라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새로운 력사창조에 총분기하자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체 국민들이여!

민족의 최고령수께서 판문점상공에 통일력사의 장엄한 신호탄을 쏘아올리시였다.

4.27판문점총격에 민심이 끓고 세계가 환호하고있다.

불과 수개월전만 해도 전운이 자욱하던 이 땅에서, 더우기 분렬과 대결의 응축점인 판문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그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판문점선언의 메아리가 적대와 불신의 두터운 얼음장을 깨는 소리인양 삼천리강토를 진감시키고있다.

대결로 점철된 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민족의 기개와 의지를 만방에 떨쳐주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영상은 우리 겨레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안겨준 따스한 불빛이였다.

그 미소는 태양처럼 환했고 자애와 진정에 넘친 음성은 세인을 감복케 했다.

뛰여난 정치지도력과 세련된 모습도 감동적이였고 호탕호방한 성격과 유모아도 만사람을 매료시켰다.

진정 력사의 고장 판문점에서 이 땅과 세계를 사로잡으신 그 위인상은 온 민족과 전세계를 경탄과 찬사로 요동치게 하였다.

감동의 12시간, 순간도 놓치면 슬멋을 듯 귀중한 실황의 화폭을 울고 웃으며 목격하고 체험할 때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꿈은 더이상 아득한 곳의 아지랑이가 아니였다.

이 땅에서 전쟁의 겨울을 밀어내고 찾아온 평화의 봄은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 대범한 아량과 통 큰 결단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돌아보면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남북판계대전환방침은 그 얼마나 획기적이였고 련이어 위한 파격적인 조치들은 또 얼마나 경탄을 자아냈던가.

그 따뜻한 손길에 평창이 환호했고 서울이 감격했으며 전국민이 반기였다.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금단의 선을 단호히 부정하시고 겨레의 마음에서부터 분단장벽을 허물어버리신 그 위대함과 담대함, 그 열렬함과 숭고함에 만인이 감복하였다.

력사의 4.27과 더불어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장래운명을 품어안고 가꾸어주실 천하절세의 위인이심을 온넋과 폐부로 절감했다.

전체 국민들이여!

삼천리강토의 허리중심 판문점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대로를 여는 확고한 지침, 조국통일위업수행의 불변의 리정표가 세워졌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일필휘지로 쓰신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라는 힘찬 구령에 따라 우리 겨레는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의 새로운 력사를 향한 거족적인 출정길에 올랐다.

분단사상 있어보지 못한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에 긴긴세월 불행과 고통, 대결과 적대로 얼룩졌던 이 땅이 태동하고 있다.

그렇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다.

지금이야말로 전국민, 각계각층이 새로운 력사의 리정표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창출을 위한 투쟁에 총분기할 때다.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남과 북의 온 겨레가 절세위인의 신호탄에 화답하여 맹속도로 질주할 때 통일의 종착역은 그만큼 가까와진다.

판문점에 뿌려내린 소중한 싹을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정성껏 키워나갈 때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 평화번영의 훌륭한 결실은 더 빨리 도래할것이다.

절세의 애국자 계시여 판문점에 봄이 왔고 통일의 태양이 빛나 민족의 하나된 가을이 달음쳐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은 새로운 통일력사의 위대한 창조자이시고 온 겨레의 희망의 기둥이시며 남북삼천리를 비치시는 찬란한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을 민족의 최고령수로 높이 모신 긍지와 영광을 만천하에 과시하자!

천하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한마음 받들고 변심없이 따르자!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대공적을 쌓으신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각계 민중모두가 위인흉모의 꽃을 마음속에 피우고 경향각지를 천하위인송배열풍으로 화끈 달구자!

민족자주는 판문점선언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이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리념과 원칙, 기조아래 판계개선과 발전의 전성기를 마련하고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열화와 같은 민족애와 드팀없는 자주의지의 결실인 판문점선언 받들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은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외세는 우리 민족과 국토분단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기본방해자이며 우리 민족의 그 누구도 남북이 하나로 합쳐져 강대해지는것을 내심 바라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 민족자존의 넋을 갉아먹고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자!

그 어떤 외풍도 막고 해치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남북공동의 소중한 합의들이 휴지장이 되였던 지난 시기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게 하자!

민족공동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오직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이룩할수 있다.

판문점에서 합토된 한나와 백두의 흙처럼 분단강토를 하나로 만들고 판문점에 뿌려진 대동강과 한강의 물처럼 끊어진 민족의 혈맥도 한피줄로 잇자!

진보와 보수, 계급과 계층, 리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강국이라는 민족의 대의를 이룩하기 위한 도도한 대하에 합류하자!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통일의 필수적 전제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떤 군사적도발이나 전략자산의 무분별한 전개, 전쟁연습도 절대로 용납치 말자!

장장 70여년간 민족의 생존을 위협해온 전쟁위험을 깨끗이 가시고 평화와 안전의 공고한 새봄이 깃들게 하자!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판문점선언의 성과적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통족대결에 명줄을 걸고 판문점선언에 도전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들의 책동을 전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통일의 앞길에 장애만을 조성해온 보수패당의 만고죄악을 낱낱이 폭로단죄하고 함부로 설쳐대지 못하게 하자!

우리 민중, 우리 민족구성원 한사람한사람이 누가 결코 대신해줄수 없는 시대의 주인공, 력사의 창조자들이다.

광망한 민족의 전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 열정과 활력을 안겨주는 력사적리정표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자!

사회각계에서 현북통일기운을 고조시키고 판문점선언리행과정을 뜨겁게 응원하여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자!

전체 국민들이여!

절세위인을 따르는 한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

온 겨레가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일심전력 받들어 판문점선언리행에 활화산처럼 떨쳐나설 때 통일강국의 고고성은 반드시 터쳐지고야말것이다.

하나된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만세!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2018년 5월 10일 서 울

보수적폐청산을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할것이다

남조선시민단체가 성명 발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리명박근혜심판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가 2일 보수적폐세력을 청산하는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선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5월 2일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리명박역도의 탄핵을 요구하여 각계층이 초불투쟁에 떨쳐나선 력사적인 날이라는데 대하여 밝혔다.

2008년의 초불항쟁은 리명박《정권》의 전면적인 탄압으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항쟁정신은 끊임없이 이어져 박근혜의 탄핵과 파면, 구속, 《정권》교체, 리명박구속 등 승리의 력사를 만들었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보수《정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강화되는 속에 지난 4월 27일 력사적인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보수세력은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달라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단체의 명칭을 가칭 《적폐청산 의렬행동본부》로 바꾸고 보수적폐청산을 기본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홍준표는 자진사퇴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남조선의 여러 정당 정치인들이 요구

남조선 《뉴스1》에 의하면 최근 정계에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악의에 차서 비난하는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놈이 정계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4일 민중당소속의 한 《국회》의원 후보는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가 판문점선언을 《주사파들의 승은 합의》라고 헐뜯었다고 하면서 이런 막말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단죄하였다.

지어 지난 2일 홍준표가 자기를 비판하는 민중당 의원들을 가리켜 《빨갱이》, 《성질같아서는 두들겨 패버리고싶다.》고 하는 용서 못할 망언까지 하였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홍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막말들을 내뱉은데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3일 정의당소속 《국회》의원 심상정은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훼손시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판문점선언은 《색갈론》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던 정치시대가 저물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며 조선반도평화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 참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민중당이 보수역적당과의 전면전 선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중당이 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발언자들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가 남북수뇌회담을 헐뜯고 민중당에 대한 빨갱이망언을 한것을 사과하지 않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부터 적폐세력의 본당인 《자유한국당》에 한포박의 광심이라도 남아있을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단언하였다.

그들은 《자유한국당》것들의 머리속에는 리명박, 박근혜의 복재시절에로 돌아가고싶은 본능만 남아있다고 비난하였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불모로 삼아 판문점선언의 비준통과를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훼방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국민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이라는 적폐를 소멸하는것은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면전을 벌릴것을 선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심의 배격을 받는 대결광무리

지금 온 남녘땅이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발표로 환희와 격정속에 들끓고있는 가운데 유독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패거리들만이 이를 악물하게 비방중상하며 북남판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고있다. 집권기간 북남판계를 사상최악의 파국상태에로 몰아넣은 그 용납 못할 죄악으로도 모자라 아직도 대결의 광기를 내뿜으며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세를 보이고있는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각 정치세력들은 판문점수뇌상봉을 감히 《위장평화전시회》라고 모독해나선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을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변인론평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북이 불러준대로 받아쓴 선언이라고 비꼬는것은 인륜을 벗어난 행동이다.》, 《민심을 지역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은 력사에 부끄럼지 않은가.》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여러 정당 의원들은 저저마다 인터네트에 《평화와 화해, 통일을 막아보려는 〈자유한국당〉은 력사의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이다.》, 《〈위장평화〉라평만 하다가 위장병이 도질수 있다.》, 《평화로운 세상을 등지고 충격과 포성이 그립다면 이 땅을 떠나라.》는 글들을 올려 《자유한국당》패들에 대한 분노심을 표시하고있다.

지어 보수야당인물들도 판문점선언을 못 믿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전쟁마귀이다, 《자유한국당》이 전쟁위험속에서만 존재하겠다는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하면서 지체없이 당을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각 정치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무조건 마련하겠다는 립장을 밝히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각계층은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을 시비하고 헐뜯으면서 온갖 악담질을 일삼고있는 극우익보수분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각계 시민단체들은 《위장평화전시회》니, 《어처구니없는 선언문》이니, 《실망스러운 발표문》이니 하는따위의 험담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자유한국당》의 극우보수패거리들에게 저주를 퍼붓고있다. 시민단체인사들은 《홍준표와 라경원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병에 걸렸다.》, 《고질적인 대결광증에는 약이 없다.》, 《더이상 민중들을 속이지 말라.》고 단죄하면서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때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의 민중당 성원들이 5월 4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남판계개선의 흐름을 막아나서고있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리명박, 박근혜의 공범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서 매일 고개를 조아리며 반성의 나날을 보내야 할이 반역당무리가 죄를 이미 민중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도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온 남녘민중이 설레는 마음으로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을 지지환영하고있는 때에 《자유한국당》패거리들만은 그를 악랄하게 시비질하다못해 시대착오적인 《색갈론》공세까지 가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판문점수뇌상봉결과를 존중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에로 나가려는 민중의 마음을 받드는 길만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악의에 차서 헐뜯어댄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역도가 민중의 요구대로 정계에서 은퇴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통족대결에 미쳐돌아가며 《색갈론》광풍까지 일으키고있는 홍준표패당의 추태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분별없는 망동이였으면 《자유한국당》에서조차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얼마전 홍준표입당은 남조선을 《통채로 북에 넘기겠는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통채로 좌파들에게 넘기겠는가.》라는 수작을 내뱉으며 그것을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구호로 적극 써먹을 기도를 드러냈다.

이렇게 되자 이 당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색갈론》으로 지방자치제선거를 치르겠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치사》이며 판문점수뇌상봉으로 격동된 민중에게 《최소한의 례의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자유한국당〉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쳤다. 《자유한국당》소속으로 지방자치제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도 홍준표의 《색갈론》구호에 동의할수 없다, 당지도부가 내놓은 선거구호를 쓰지 않겠다고 로골적으로 거부하고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이후 보수세력내부가 분렬와해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판문점수뇌상봉의 성과를 는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통족대결에 환장해 날뛰는 홍준표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는데만 기승을 부리는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집단이다. 그러니 어찌 남조선 각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지 않을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또다시 통족대결의 광풍을 불아오려고 발광하고있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을 력사의 무덤속에 통채로 매장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남조선로동자들 파쑈악법페지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 플러스》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로동자들이 9일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철폐를 요구하여 로동자들이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페지! 정치—사상의 자유없는 민주주의는 가짜다》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나왔다.

그들은 선언문을 통해 《보안법》은 동족대결로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이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세계적으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정치적변화나 민주주의사회건설을 기대할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정부》가 《보안법》페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립장을 표명한적이 있다고 까밝히고 그들은 북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은 남북판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하였다.

그들은 적폐의 뿌리는 《보안법》이며 그것은 온갖 적폐들이 번창할수 있게 한 근원이라고 지탄하면서 《보안법》페지야말로 적폐청산을 위한 필수적과제이며 민주주의발전과 인권개선, 통일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적인권보장을 위해 《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악취풍기는 일본의 정치풍토

일본에서 각종 추문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재무성 사무차관 후꾸다가 성희롱의혹으로 갑자기 사임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가 사임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부수상겸 재무상 아소는 어느 한 모임에서 《성희롱의혹이 있다면 쌍방의 주장을 다 들어보는것이 공정하다.》고 하면서 야당의 공격에 기세등등하게 맞대응해나섰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시간 지나 성희롱의혹이 제기된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후꾸다를 비호두둔하던 아소를 비롯한 아베패당이 매사하게 되였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베세력은 모리또모학원과 가케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이 날이 감에 따라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있는것으로 하여 몸머리를 앓는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성희롱의혹사건이 터지기 며칠전에는 농림수산상이 각료회의뒤끝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케학원 수의학부신설과 관련한 문서가 농림수산성에 남아있다고 하면서 문서를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서에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신설과 관련하여 3년전에 학원관계자 등이 수상관저를 찾아갔을 때 당시 수상비서관이 《본건은 수상의 안건》이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모리또모학원과 가케학원문제는 아베부부가 깊숙이 관여한 부정추문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사회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아베의 처는 모리또모학원의 명예교장으로 있을 때 이 학원이 오사까부의 국유지일부를 눅거리로 사들이도록 해주었다. 한편 아베는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신설을 위해 은밀히 권력을 발동하였다고 한다.

사건이 터지자 일본 각계에서는 아베정권에 대한 규탄배격이 터져나오고 그의 더러운 행적을 끝까지 파헤칠것을 요구해나섰다.

아베는 확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강짜를 쓰며 모든것을 부정해나섰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이번 문서공개로 아베부부는 더는 빠질길이 없게 되였다. 수상관저에서 진행된 수상비서관과 학원관계자사이의 면담기록의 공개는 아베가 뒤덮미를 잡히는 계기가 되였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부정추문사건으로 일본사회에서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격히 증대되고있다.

전 수상이였던 고이즈미는 기자단에 아베의 처가 모리또모학원 명예교장을 하였는데 어째서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가, 변명을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케학원의 수의학부신설을 둘러싸고 당시 수상비서관과 학원관계자사이의 면담기록이 공개된것과 관련하여서도 그는 기억과 기록가운데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것이다, 기록이 남아있기때문에 인정할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베세력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추문사건은 여당에 대한 야당세력의 불만도 더한층 야기시키고있다.

야당들은 이미전부터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획책한 아소를 부수상 겸 재무상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야당세력은 재무성 사무차관의 성희롱추문사건이 터지자 아소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할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전격적인 공세전으로 넘어갔다.

아소를 해임시킬데 대한 요구를 자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야당세력은 그에 반발하여 국회 중의원 내각위원회와 후생로동위원회가 각기 조직한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립헌민주당, 희망의 당 등 6개 야당들은 지난 4월 13일 아베부부가 련루된 가케학원과 모리또모학원문제 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그들은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정부의 부정추문행위들을 폭로하면서 수상이 정치를 한갖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고있다고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그러한 정권은 시급히 퇴진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일치단결하여 그에 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올해 9월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여기서 아베는 3선을 노리고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는 부정추문사건은 광범한 민중과 야당들 지어 여당내에서까지 아베패당에게 반기를 들고나서게 하고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아베의 즉시적인 퇴진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아베의 지지률은 점점 떨어지고있다.

도꾜와 오사까 등지에서 진행된 시위와 집회들에 참가한 수많은 각계층 군중은 《아베정치를 용서치 말자》, 《퇴진하라》, 《아베내각은 퇴진을!》이라고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짓말쟁이내각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웨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아베내각이 물러날것을 요구하였다.

각종 부정추문사건으로 악취풍기는 일본의 정치풍토를 두고 세상사람들은 망조가 들었다고 조소하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중국에서 위성 발사

중국이 9일 《고분 5》호위성을 성과적으로 쏘아올렸다.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4》호(병)운반로케트에 탑재되여 발사된 위성은 6대의 관측기구를 갖추고 환경감시와 자원탐사, 재해방지 등 부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게 된다.

부정부패와의 투쟁에 언급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7일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와의 투쟁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수많은 민족화폐를 국외로 빼돌려 나라의 경제에 부정적후과를 초래한 250명의 은행부문 관리들과 그 련루자들을 구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것을 다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불자원리용노력

알제리에서 불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6일 이 나라 정부는 주민들의 먹는물과 농업을 비롯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시키고있다고 밝혔다.

전략에 따라 29개 대학과 3개의 특별강습기관들에서 불자원리용분야의 기술자와 연구사들이 양성되고있다.

또한 2030년까지 90개의 언제공사를 완공하여 저수량을 약 100억㎥로 늘이며 해안지역에서 바다물정제공장건설도 적극 다그치게 된다.

아베정권의 헌법개정시도를 놓고 아귀다툼

일본에서 야당들이 최근 아베정권의 헌법개정시도에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립헌민주당 대표는 현 상황에서 헌법 9조를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위대》로 되여버릴것이며 해외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자위대》로 되고만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헌법개정을 저지시키려는 립장을 다시금 확언하였다.

한편 희망의 당 대표와 민진당 대표 역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안을 반대하며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고만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81075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법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